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이지안 (동의대학교 연구원)**

안영식 (동의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창업실패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청년 창업자는 기업경영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실패의 원인은 창업 준비 부족과 창업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개발과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기본적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정성적 연구방법인 문헌연구, 초점집단 인터뷰,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창업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완성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7개의 구성요인과 15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 의지확인단계에는 자기 분석력 2개 문항, 창업철학 정립 능력 3개 문항이며, 창업모델구상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에서 각 2개 문항씩,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청년 창업자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측정해 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업교육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청년창업, 창업자, 창업역량, 역량개발, 측정도구

1. 서론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양영석 외, 2012). 최근 3년간 국내의 청년 실업률을 확인해 보면,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김향덕·이철규, 2018), 청년 체감실업률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김태운·민인식, 2015).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 증가의 해결책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김향덕·이철규, 2018; 양영석 외, 2012).

청년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는 이유는 창업이 고용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창업초기단계에서 기업의 활발한 창업 활동이 지원된다면 이는 곧 신규고용창출의 핵심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황보운 외, 2013).

특히 일자리 창출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출현이 훨씬 더 많은 몫을 할 수 있기에(Clifton, 2015)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기개발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혁신 역량 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창업의 실패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창업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곽동철 외, 2016). 청년 창업자는 기업경영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서 창업을 성공하기 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노규성·강현직, 2012). 그러므로 창업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창업 준비부족(황보운 외, 2013)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OECD(2017)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창업역량과 창업과 관련한 지식보유 수준은 21.6%로 나타나 설문참여 대상 국가 38개국 중 36위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김향덕·이철규, 2018). 이는 청년 창업자의 역량 특성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3791).

** 제1저자,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tomoelee@nate.com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ays@deu.ac.kr

· 투고일: 2018-05-13 · 수정일: 2018-07-04 · 게재확정일: 2018-08-08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김형철 외, 2015)는 국내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청년창업의 실패 원인은 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준비와 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준비 또는 창업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 준비 또는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 준비 또는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성과에 관련한 연구는 창업 준비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김도관·진찬용, 2012; 오재우 외, 2015), 창업 준비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조문연·양동우, 2014), 창업 준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박재환·안태욱, 2016; 박주환·강만수, 2016), 창업자 역량과 기업성과(정길호·김병근, 2017) 등이 있으며, 창업의도에 관련한 연구는 창업 준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강선자·변상해, 2017),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채연희, 2017; 최대수·성창수, 2017) 등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창업에 있어서 창업 준비와 창업역량이 창업성과, 창업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자가진단(양영석·김명숙, 2016), 기업가정신 지표개발(김성규 외, 2016), 사회적 기업가정신 측정도구(오현석 외, 2015)와 같은 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나 창업자의 특성과 기질, 적성 등과 같은 창업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는 박동진·최대정(2003) 이후에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개발과 창업 준비활동을 위한 기본적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창업자의 특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창업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가 창업초기단계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측정해 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부족한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업교육에 있어서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2.1 청년창업

청년창업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둘의 개념을 살펴보면 청년창업을 이해할 수 있다(노규성·강현직, 2012). 청년에 대한 정의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의 상한과 하한은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채구목, 2004). 청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청

년의 사회적 개념은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는 신체적인 성숙이나 정신적인 발달 등 심신 양면에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전화하는 시기를 말한다(김종하, 2010). 청년 세대는 일반적으로 20대와 30대에 걸치는 시기를 말하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UN과 OECD에서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출 나이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군 복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대에서 30대까지(20-39세)를 청년으로 보고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김종하, 2010).

한편 창업자 (Entrepreneur)는 프랑스어의 *Entreprendre*를 어원으로 하고,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Undertake*(떠맡다)가 된다. *Entreprendre*는 *Entre* (Between)와 *Prendre* (Take)의 합성어로 13세기의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중개인을 지칭했다. 실크로드 등의 물류를 지탱한 것은 당시 환경의 위험과 재난에도 관계 없이 부를 위해 사업에 전력을 다한 상인들인 중개인이었다. 위험과 함께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본래 의미의 창업자이다(Terashima, 2008). 다시 말해서 창업자는 기업 자원의 신 결합, 즉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들 특유의 창업자적 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아가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형성하는 개척자이자 선구자이며, 모험가로서의 혁신적인 의식과 사고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육창환, 2015). 그러므로 청년 창업자는 20대에서 30대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창업자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가 정부의 주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창업자들의 열정,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창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자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임아름 외, 2015).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연령대별 신설법인 통계에 의하면 30세 미만의 청년창업법인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자들은 높은 창업 의지에 비해서 전공 지식과의 괴리, 도전정신과 희생각오의 부족, 대학생 창업 지원제도에 관한 지식 부족, 외적 환경의 비우호성 인식 등이 창업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청년창업이 부진한 이유는 창업자의 마인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다음으로 창업 관련 지식 부족, 도전정신 결여, 관련 지원의 미비,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부모와 가족의 만류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신모, 2006).

2.2 창업역량

Entrepreneurship (이하 창업역량)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여 개념 정의 또한 여러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창업역량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일치된 합의점의 부족으로 창업역량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화영·안연식, 2017). 특히 국내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행위의 주체인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와 혼동하여 起業家精神(기업가정신)이 아닌 企業家精神(기업가정신)이라고 하여 본래의 의미가 오용되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글을 한문으로 변환하여 적지 않는 요즘에는 한자의 구분은 실제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김춘화 외, 2013).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Entrepreneurship의 ‘ship’을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앙트러프러너십(김규동, 2014; 이주혁 외, 2012), 앙트프르너십(정월순, 2009; Park et al., 2006) 등으로 음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음역은 단어 자체의 길이가 길고 용어의 국문표기가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강병오, 2011).

창업과 관련한 학문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창업역량을 혁신적 창업자의 활동 또는 혁신적 과정 (Activities or Process of Entrepreneur)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창업역량은 창업자의 정신(Spiri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과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박춘엽, 1997).

창업역량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제학자 Say가 처음 만들어서 Schumpeter와 Drucker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Drucker(1985)에서는 창업역량이란 개인의 성격이 아닌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론, 행동 양식이라고 하면서 이를 소유경영자 (Owner-Management)와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Schumpeter(1934)는 경제발전의 생산 활동과정을 창조적 파괴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창업역량의 핵심요소로서 창조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창업역량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창업자 사고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Kirzner(1978)에 의하면, 창업역량은 사업기회를 창조하기보

다는 그 기회를 인지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창업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전략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하여 창업자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규동, 2014; 이용희·박수홍, 2014; 이용희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통해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에 착목하여 창업자의 특성 요인을 창업을 위한 역량 요소로 보며, 이를 창업역량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역량은 창업자의 비전과 아이디어와 함께 발휘되며, 이는 곧 기업의 성공과도 결부되므로(김연정·노병수, 2012)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면 창업역량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김춘화 외, 2013). 특히 창업자의 창업역량은 창업을 하는 기업의 초기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Chandler & Jansen, 1992). 그러므로 창업자는 본인의 역량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념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역량 함양을 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hurchill(1979)의 연구와 이를 보완한 Devellis(2003)의 개발절차를 준용하였다. 이는 정성적 자료 수집결과를 이용하여 정량적 연구로 구체화한 순차적 혼합 연구 (Sequential Mixed Method)를 적용한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예비문항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조사를 하여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그림 1>.

단계	절차	방법	대상	
1	정성적 연구	문헌연구	벤처, 창업, 성공, 역량	
2				예비 구성문항 추출
3				예비 문항 개발
4	정량적 연구	FGI	교육 전문가 5명	
5				예비문항 타당화
		전문가 검증	창업자 10명	
		설문조사	창업자 102명	
		구성타당도 검증	창업자 102명	

<그림 1> 연구 절차도

3.1.1 정성적 연구방법

정성적 연구에서는 이용희(2016)가 개발한 벤처기업 창업자

의 핵심역량모형을 기반으로 문헌연구 대상범위를 창업의지 확인단계, 창업모델구상단계, 벤처창업계획단계로 구분하여 초기 구성문항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전문가 5명을 대

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추출한 115개의 초기 구성문항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제를 하여 총69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이때, 문항에 대한 풀 (Pool)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에서 추출하지 못한 문항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로 제안 받았다. 정성적 연구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비문항 개발 단계에서 도출된 문항들이 해당 구성개념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창업 전문가 검증 실시하여 측정문항에 대한 정제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10명의 전문가들이 문항을 검토한 후, 각 문항이 해당 구성개념을 설명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내용타당성 평가는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문항이 구성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합한지 ‘1점은 매우 부적합하다’에서 ‘5점은 매우 적합하다’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된 각 문항은 내용타당성검증 (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을 하여서 54개의 문항으로 다시 축소하였다.

3.1.2 정량적 연구방법

내용타당성검증을 통해 도출한 문항들이 창업역량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량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정량적 연구단계에서는 정성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54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또한 정량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창업역량 척도 측정문항 외에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창업 시기, 창업지역, 창업시 자본규모, 현재 자본규모, 창업당시 종업원 수, 현재 종업원 수, 창업 업종 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도 포함하여 이에 대하여 명목 또는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먼저 연구절차의 1단계인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초기 구성문항 추출을 위해서 벤처, 창업, 성공, 역량을 키워드로 학술 DB (Data Base) 프로그램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 등을 이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이때 풍부한 항목 풀을 갖추기 위해서 항목의 내용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연구자들이 제시한 측정항목은 전부 수집하였고, 수집된 항목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 하였다(Hinkin et al., 1997).

2단계는 추출한 초기문항에 대한 수정·보완 및 추가적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FGI는 교육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26일에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FGI를 통해 확보된 항목 풀을 정제하기 위하여

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문가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선발기준을 10년의 법칙 (10-Years of Rule of Thumb)을 적용하여 (Levitin, 2006)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자본증가율이 창업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증가율을 보이는 창업자를 선정하였다<표 1>. 분석방법은 문항별 평균값, 표준편차, CVI를 이용하였다.

<표 1> 창업 전문가 일반적 정보

구분	이름	소속	경력기간	자본증가율
1	김○욱	(주)N○○○	15년	2,000%
2	정○성	(주)J○○○	18년	333%
3	한○우	(주)C○○○	10년	250%
4	오○훈	(주)P○○○	16년	500%
5	김○수	(주)S○○○	23년	5,000%
6	손○석	(주)B○○○	14년	20,000%
7	이○원	(주)T○○○	18년	2,000%
8	허○철	(주)K○○○	22년	714%
9	남○곤	(주)I○○○	20년	500%
10	이○기	(주)M○○○	34년	20,000%

정량적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종 102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항목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창업역량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벤처, 창업, 성공, 역량을 키워드로 학술 DB 프로그램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 등을 이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예비문항은 이용희(2016)가 개발한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이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절차 (Process)와 각 절차에 필요한 내용 (Contents)을 역량기반으로 제시하여서 본 연구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측정도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핵심역량은 <표 2>에서와 같이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모델구상단계, 벤처창업계획단계의 세 단계 순서로 구성

되며, 각 단계에 맞추어 문헌연구를 하였다. 세 단계에 해당하는 하위역량요소는 총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역량요소별로 예비문항을 5개씩 조사하여서 초기 예비문항 총115개를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예비문항 115개는 1차 전문가평가에서 창업교육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모델구상단계, 벤처창업계획단계의 세 단계에 해당하는 23개의 하위역량요소별로 예비문항을 3개씩으로 축소하여서 총69개의 문항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표 2> 측정도구 문항구성의 근거

단계	측정치표 (하위역량 수)	참고문헌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분석력 (3)	김영문·전지은(2009), 이승배(2016), 이용희(2016), 조준희·김찬중(2015), 최용석 외(2016) 등
	전문분야 지식·기술력 (2)	
	창업철학정립능력 (2)	
창업모델 구상단계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2)	박수홍(2009), 이승배(2016), 이윤희(2016), 조현숙·김영문(2004), 최용석 외(2016) 등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3)	
	벤처창업모델 기획력 (3)	
벤처창업 계획단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 (2)	박수홍(2009), 윤정현·서민교(2014), 이용희(2016), 전영일 외(2003), 전인오·안운석(2016) 등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3)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3)	

<표 3> 측정도구 문항구성의 근거

단계	측정치표	문항	평균	표준편차	CVI	삭제여부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분석력	1	4.80	0.63	0.95	
		2	4.60	0.70	0.90	
		3	4.50	0.97	0.88	
		4	4.20	0.92	0.80	
		5	4.40	0.84	0.85	
		< 6 >	3.50	1.18	0.63	삭제
		7	4.30	0.95	0.83	
		< 8 >	3.90	1.29	0.73	삭제
		9	4.30	1.16	0.83	
	전문분야 지식·기술력	10	4.50	1.27	0.88	
		11	4.40	1.07	0.85	
		12	4.30	0.95	0.83	
		13	4.40	0.84	0.85	
		14	4.50	0.85	0.88	
		15	4.40	0.84	0.85	
		16	4.30	0.82	0.83	
	창업철학정립능력	17	4.20	0.79	0.80	
		18	4.60	0.70	0.90	
		19	4.40	0.84	0.85	
		20	4.30	0.82	0.83	
		21	4.70	0.48	0.93	
창업모델 구상단계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22	4.10	0.57	0.78	
		23	4.10	0.88	0.78	
		24	4.20	0.79	0.80	
		25	4.30	0.82	0.83	
		< 26 >	4.10	1.20	0.78	삭제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27	4.30	0.82	0.83	
		< 28 >	3.50	1.08	0.63	삭제
		< 29 >	3.10	1.29	0.53	삭제
		< 30 >	3.90	1.20	0.73	삭제
		< 31 >	4.00	1.15	0.75	삭제
		32	4.30	0.82	0.83	
		33	4.10	0.88	0.78	
		34	4.10	0.57	0.78	
		35	4.60	0.52	0.90	
		< 36 >	3.50	1.27	0.63	삭제
벤처창업모델 기획력	37	4.30	0.82	0.83		
	38	4.30	0.82	0.83		
	39	4.10	0.88	0.78		
	40	4.20	1.03	0.80		
	41	4.10	0.88	0.78		
	42	4.20	0.92	0.80		
	43	4.00	0.82	0.75		
	< 44 >	4.00	1.25	0.75	삭제	
	< 45 >	3.90	1.20	0.73	삭제	
	46	4.40	0.70	0.85		
벤처창업 계획단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	47	4.20	0.79	0.80	
		< 48 >	4.10	1.10	0.78	삭제
		49	4.20	0.79	0.80	
		50	4.20	0.92	0.80	
		< 51 >	4.00	1.05	0.75	삭제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52	4.40	1.07	0.85	
		53	4.20	1.48	0.80	
		< 54 >	3.90	1.20	0.73	삭제
		55	4.60	0.70	0.90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56	4.50	0.85	0.88	
	57	4.40	0.84	0.85	
	< 58 >	4.00	1.33	0.75	삭제
	59	4.20	0.92	0.80	
	60	4.30	0.82	0.83	
	61	4.50	0.71	0.88	
	62	4.30	0.95	0.83	
	63	4.60	0.70	0.90	
	64	4.40	0.84	0.85	
	< 65 >	4.10	1.10	0.78	삭제
	66	3.90	0.99	0.73	
	67	4.40	0.70	0.85	
	68	4.70	0.67	0.93	
	69	4.60	0.70	0.90	

2차 전문가평가는 창업자 10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사를 하여서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3.75 미만, 표준편차가 1.00 미만, CVI 값이 .80 미만(Fehring, 1987; Saranto & Leino-kilpi, 1997; Williams & Webb, 1994) 중에 2개 이상 속하는 문항은 삭제하였고, 1가지에 속하는 문항은 수정하여서 최종적으로 창업의지확인단계 19문항, 창업모델구상단계 16문항, 벤처창업계획단계 19문항으로 총54개의 문항으로 축소하였다<표 3>.

4.2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54개의 문항이 창업역량 측정도구로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인구 통계적 특성 중에 성공한 창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척도를 규정하였고, ‘창업시 자본규모, 현재 자본규모’와 ‘창업당시 종업원 수, 현재 종업원 수’의 비고를 통해서 창업을 한 당시에 비해 현재 증가율이 없는 데이터는 성공으로 규정할 항목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102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4> 정량적 연구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범주		빈도(명)	비율(%)
	남자	여자		
연령	20대		4	3.92
	30대		12	11.76
	40대		51	50.00
	50대		31	30.39
	60대		4	3.92
최종학력	고졸		15	14.71
	전문학사		12	11.76
	학사		47	46.08
	석사		12	11.76
	박사		16	15.69
창업 실패경험	없다		55	53.92
	1번		31	30.39
	2번		8	7.84
	3번 이상		8	7.84
창업시기	1990년 이전		8	7.84
	1990~2000년		19	18.63
	2001~2010년		32	31.37
	2011년 이후		43	42.16
창업지역	경기지방		15	14.71
	호서지방		4	3.92
	호남지방		4	3.92
	영남지방		77	77.45
자본 증가율	1천% 미만		71	69.61
	1천% 이상		18	17.65
	1만% 이상		4	3.92
	10만% 이상		9	8.82
종업원수 증가율	1천% 미만		71	69.61

창업업종	1천% 이상	31	30.39
	정보기술	31	30.39
	제조	27	26.47
	서비스	40	39.22
	건설	4	3.92
Total		102	100.00

4.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54개의 문항에 대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정해 놓은 고정된 요인 값으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서 KMO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 기준인 0.7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하여야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성규 외, 2016).

창업의지확인단계는 선행연구에서 ‘자기분석력, 전문분야 지식·기술력, 창업철학정립능력’ 3개의 고정된 요인으로 분석하여 해당 고정요인에 묶여지지 않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전문분야 지식·기술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묶여지지 않고 다른 요인에 분산되어 ‘자기분석력, 창업철학정립능력’ 2개 요인에 총8개 문항의 KMO 검정값은 .829,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한 값($\chi^2=655.687, p<.001$)을 나타냈다<표 5>.

<표 5> 창업의지확인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창업철학정립능력	자기분석력	공통성
16	.864	.274	.821
18	.829	.268	.759
15	.820	.212	.717
14	.791	.418	.800
2	.159	.939	.907
5	.281	.818	.748
1	.410	.810	.824
3	.506	.652	.682
아이겐값	3.261	2.997	
설명변량(%)	40.759	37.467	
누적변량(%)	40.759	78.226	

KMO=.829;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655.687(p<.001)$

창업모델구상단계는 선행연구에서 ‘창업 아이디어 도출 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3개의 고정된 요인으로 분석하여 해당 고정요인에 묶여지지 않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문항이 제거되고, 총12개 문항의 KMO 검정값은 .842,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한 값($\chi^2=1584.527, p<.001$)을 나타냈다<표 6>.

<표 6> 창업모델구상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창업 아이디어 도출 능력	공통성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아이디어 도출 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아이디어 도출 능력		
32	.894	.279	.419	.131		.894
31	.712	.419	.434	.434		.871
29	.706	.445	.365	.365		.830
30	.643	.418	.491	.491		.829
28	.416	.823	.255	.255		.916
27	.438	.798	.295	.295		.916
26	.345	.735	.392	.392		.813
25	.152	.697	.590	.590		.857
22	.172	.304	.854	.854		.850
23	.362	.382	.726	.726		.805
24	.639	.212	.676	.676		.910
20	.514	.372	.656	.656		.834
아이겐값	3.559	3.390	3.377	3.377		
설명변량(%)	29.657	28.250	28.142	28.142		
누적변량(%)	29.657	57.907	86.050	86.050		

KMO=.842;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1584.527(p<.001)$

벤처창업계획단계는 선행연구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 3개의 고정된 요인으로 분석하여 해당 고정요인에 묶여지지 않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묶여지지 않고 다른 요인에 분산되어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 2개 요인에 총11개 문항의 KMO 검정값은 .84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한 값($\chi^2=1123.651, p<.001$)을 나타냈다<표 7>.

<표 7> 벤처창업계획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공통성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	
40	.876	.173	.798
41	.807	.347	.771
43	.799	.455	.845
42	.788	.296	.708
45	.642	.557	.723
48	.056	.884	.784
50	.521	.766	.857
52	.475	.755	.796
47	.410	.681	.623
49	.528	.663	.718
51	.556	.632	.708
아이겐값	4.346	3.995	
설명변량(%)	39.507	36.317	
누적변량(%)	39.507	75.824	

KMO=.844;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1123.651(p<.001)$

4.2.2 확인적 요인분석

창업역량 측정도구의 31개 문항에 대해 7개 요인의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개발된 척도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Worthington & Whittaker,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AMOS 2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과 자유도의 비 (Normed χ^2), 비교적합도 지수 (CFI), 증가적합도 지수 (TLI), 원소간평균차이 (RMSEA)를 산출하였고, 판단기준은 카이제곱과 자유도의 비는 1이상 3이하, 비교적합도 지수와 증가적합도 지수는 .9이상, 원소간평균차이는 .05이상 0.8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였다(Hoyle & Panter, 1995).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1차 분석결과)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DF	RMSEA	TLI	CFI
기준값	1 ~ 3	.05 ~ .08	.9 이상	.9 이상
창업의지확인단계	5.975	.222	.786	.855
창업모델구상단계	6.094	.225	.790	.837
벤처창업계획단계	5.994	.222	.755	.80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1차 결과는 <표 8>에서 보듯이 CMIN/DF가 3보다 높고, RMSEA가 .08보다 높다. 증분적합지

수에 해당하는 TLI와 CFI 또한 .9를 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모형의 적합도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중상관관계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은 항목들을 삭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였다<표 9>.

<표 9> 측정도구 문항구성의 근거

단계	측정지표	문항	삭제여부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 분석력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삭제
		2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3 나는 지속적인 자기학습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삭제
		5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창업철학 정립능력	14 나는 개인적 이익과 함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삭제
15 나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16 나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 공감적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창업모델 구성단계	창업아이 디어 도출능력	20 나는 새로운 기회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지하여 기회는 포착하고 문제에 대비한다.	
		22 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삭제
		23 나는 일을 처리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삭제
		24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25 나는 제품 제안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고객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고객에게 제안한다.	삭제
		26 나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삭제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27 나는 경쟁사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한다.	
		28 나의 창업 제품/서비스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경쟁사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29 나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변화 발전시킨다.	삭제
		30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	
사업계획 프레젠테 이션 능력	3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다.		
	32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삭제	
	40 나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문서를 작성한다.	삭제	
	41 나는 사업의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해 내용에 적합한 표나 그래프를 활용한다.	삭제	
	42 나는 창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 나는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서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		
	44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삭제	
	45 나는 조직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삭제	
벤처창업 계획단계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47 나는 조직의 업무 관리시스템은 창업초기에 구축해야 한다.	삭제
		48 나는 한정된 기업의 경영자원(직원 포함)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다.	삭제
		49 나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재정 상태를 작성할 수 있다.	삭제
	50 나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알고 있다.	삭제	
	51 나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재정 상태를 작성할 수 있다.		
	52 나는 인재중심 조직문화를 중시한다.		

이상과 같이 SMC가 낮은 16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총15개의 문항이 창업역량 측정을 위한 도구로써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10>을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인 CMIN/DF가 1.526, 1.365, 1.398로 1이상에서 3이하에 속하며, RMSEA는 .072, .060, .063으로 .05이상에서 .08이하이다. 증분적합지수에

해당하는 TLI와 CFI 또한 1에 가까운 .9 이상임을 확인해 보았을 때 모형이 창업역량의 내적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2차 분석결과)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DF	RMSEA	TLI	CFI
기준값	1 ~ 3	.05 ~ .08	.9 이상	.9 이상
창업의지확인단계	1.526	.072	.980	.992
창업모델구성단계	1.365	.060	.992	.997
벤처창업계획단계	1.398	.063	.992	.999

4.3 최종 측정도구

창업역량 측정도구는 7개의 구성요인과 15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창업의지확인단계에는 자기분석력 2개 문항, 창업철학정립능력 3개 문항, 창업모델구성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에서 각 2개 문항,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각 2개 문항이다. 이에 대한 전체 항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1이며,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표 11> 측정도구 문항구성의 근거

단계	측정지표	문항	평균	표준편차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 분석력	2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3.71	0.50	
		5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3.55	0.61	
	창업철학 정립능력	15 나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3.67	0.62	
		16 나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 공감적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3.69	0.54	
		1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확립하고자 한다.	3.65	0.56	
창업모델 구성단계	창업아이 디어 도출능력	20 나는 새로운 기회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지하여 기회는 포착하고 문제에 대비한다.	3.47	0.70	
		24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	3.49	0.73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27 나는 경쟁사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한다.	3.55	0.57	
		28 나의 창업 제품/서비스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경쟁사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3.53	0.64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30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	3.53	0.61	
		3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다.	3.49	0.67	
		42 나는 창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67	0.55	
	벤처창업 계획단계	사업계획 프레젠테 이션 능력	43 나는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서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	3.57	0.67
			51 나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재정 상태를 작성할 수 있다.	3.47	0.75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52 나는 인재중심 조직문화를 중시한다.	3.67	0.55

측정도구의 구성요인 간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표 12>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표 12> 측정도구 구성요인 간 상관분석

	자기 분석력	창업철학 정립능력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자기 분석력	1						
창업철학 정립능력	.515**	1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746**	.649**	1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612**	.794**	.713**	1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656**	.653**	.828**	.770**	1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682**	.607**	.716**	.635**	.779**	1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692**	.612**	.741**	.589**	.656**	.816**	1

** .p<.01

V. 결론

청년창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에 창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창업자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을 계획 또는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년대상 창업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창업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정성적 연구방법인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뷰, 전문가 검증을 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이후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최종 창업역량 측정도구를 완성했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도구는 3개의 단계, 7개의 구성요인, 그리고 15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창업의지확인단계에는 자기분석력 2개 문항, 창업철학정립능력 3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 단계인 창업모델구상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에서 각 2개 문항으로 총 6문항,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각 2개 문항으로 총 4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창업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예비 창업자는 창업자로서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여 창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용희, 2016)과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창업역량의 수준은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창업자 육성 모델 개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창업초기에 필요한 역량을 단계별로 제시를 하였으므로 각 단계에 따라 어떠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창업역량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창업자의 지식,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변영조 외, 2014)에 부응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척도개발을 위해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을 실시하고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의 실증 연구를 통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이에 따른 후속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창업자의 역량과 관련한 측정항목을 도출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의 속도와 요구를 반영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시대와 장소에 적합한 창업역량 구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성패를 위한 변수를 창업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 관점으로 확장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역량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하여 통합적으로 발휘되므로(장윤영·이희수, 2017) 창업 생태계 관점의 접근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한 실제적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역량을 창업초기단계에 한정하기 보다는 성장 단계별로 창업자의 역량을 구체화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창업자의 언어로 나타내기 어려운 암묵적 차원(김수영, 2012)의 심층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서 창업자의 역량을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역량 측정도구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근거제시에 비해 외적 타당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국내외의 타당성이 증명된 측정도구와의 유사성 또는 연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

강병오(2011).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강선자·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곽동철·주영혁·조봉현(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 요인 고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77-94.
- 김규동(2014). 아프리카 여성 앙트러프러너십 발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1, 3-34.
- 김도관·진찬용(2012). 소상공인들의 BSC기반 창업 준비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4), 113-122.
- 김성규·박상혁·박정선·설병문·손은일(2016).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벤처창업연구*, 11(3), 63-76.
- 김수영(2012).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심성함양의 관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연정·노병수(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6), 23-31.
- 김영문·전지은(2009). 개인의 내부적·외부적 요인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 42(2), 39-56.
- 김중하(2010). 청년 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김태운·민인식(2015).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전환에 관한 연구: 다중상태 이산시간 헤저드 모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195-222.
-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 점포창업자의 창업 전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135-1147.
- 김향덕·이철규(2018). 청년창업자 특성과 창업불안과의 관계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2), 53-76.
-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 김희영·안연식(2017). Entrepreneurship, 기업가 지향성 및 기업가 활동에 대한 개념적 고찰: 현대중공업의 창업가 정주영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1(3), 1-45.
- 노규성·강현직(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79-87.
- 박동건·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61-91.
- 박수홍(2009). Entrepreneurial Competence 강화를 위한 Blended Learning Service 모형개발, *e-비즈니스연구*, 10(4), 277-297.
- 박재환·안태욱(2016).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1), 39-47.
- 박주완·강만수(2016). 소상공인 창업준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성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9(3), 31-46.
- 박춘엽(1997). 창업 및 창업학의 국내의 동향, *IE매거진*, 4(1), 51-55.
- 변영조·김명숙·양영석(2014).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지표 개발 연구, *벤처창업연구*, 9(4), 77-85.
- 양영석·김명숙(2016). 성공적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사전자가진단 (Self-Checkup Preparation)항목 개발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113-120.
- 양영석·양수희·황보운(2012). '길 좋은 청년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167-179.
- 오재우·이동형·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 오현석·이상훈·류정현·박한림·최운미(2015). 사회적기업가정신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109-133.
- 육창환(2015).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윤정현·서민교(201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국제기업가정신,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국제화 성과 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18(3), 137-159.
- 이승배(2016).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이 창업교육을 매개로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31(2), 117-138.
- 이신모(2006). 우리나라대학의 창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창업학회지*, 1(1), 124-152.
- 이용희(2016).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용희·박수홍(2014).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탐색, *벤처창업연구*, 9(6), 231-244.
- 이용희·홍광표·정유섭·박수홍(2016). 벤처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전략 개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1), 133-157.
- 이주혁·박수홍·김두규·남기곤(2012). 중소기업 중간관리자의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역량 증진 프로그램 설계, *기업교육연구*, 14(2), 277-306.
- 임아름·김형철·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설턴트연구*, 15(3), 143-154.
- 장윤영·이희수(2017). 역량 모델을 통한 IT 영업 역량 측정도구 개발, *인적자원관리연구*, 24(1), 27-56.
- 전영일·현승용·이근호(2003).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문제와 활동 중심의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3-23.
- 전인오·안운석(2016). 창업마케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97-109.
- 정길호·김병근(2017). 창업환경 요소가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역량,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2), 232-255.
- 조문연·양동우(2014).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9(6), 37-46.
- 정월순(2009). 일본의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에 관한 소고, *한국창업학회지*, 4(1), 93-109.
- 조준희·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조현숙·김영문(2004). 성공적 창업을 위한 벤처기업 예비 창업자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3, 25-49.
- 채구목(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 채연희(2017). 대학생의 기업가적역량이 취업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실패인식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2(4), 165-183.
- 최대수·성창수(2017). 대학생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2(1), 101-109.
- 최용석·이재은·강지원·김선구·한가록(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5-27.
- 통계청(2018).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Retrieved (2018.05.06.)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65835.
- 황보운·김재형·방중혁(2013).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지원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149-160.
- Byun, Y. J., Kim, M. S., & Yang, Y. S.(2014). The study of

- metrics development for entrepreneurial program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77-85.
- Chae, Y. H.(2017).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 and moderating effect of fear on start-up,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4), 165-183.
- Chai, G. M.(2004).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3), 159-181.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ang, Y. Y., & Lee, H. S.(2017). A scale development of IT sales competencies using a competency mode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4(1), 27-56.
- Cho, H. S., & Kim, Y. M.(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enture companies by the experiences of business start-up,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 25-49.
- Cho, J. H., & Kim, C. J.(2015).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Cho, M. Y., & Yang, D. W.(2014).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reparation and the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Focused on the startup support program's modified effec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37-46.
- Choi, D. S., & Sung, C. S.(2017).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competency, creativity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market perception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01-109.
- Choi, Y. S., Lee, J. E., Kang, J. W., Kim, S. G., & Han, G. R.(2016).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lastic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5-27.
- Chong, K. H., & Kim, B. K.(2017).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factors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ulture, external cooperation,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232-255.
- Chung, W. S.(2009). A study on start-up activity and support system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1), 93-109.
- Churchill, G. H.(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1), 64-73.
- Clifton, J.(2015). *캘럽보고서가 예고하는 일자리 전쟁(The coming jobs war)*, 정준희 Trans, Seoul: swbook(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DeVellis, R. F.(2003).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2nd ed., Vol. 2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 Row.
- Fehring, R. J.(1987).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es: Heart and lung,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16(6), 625-629.
- Hwang, B. Y., Kim, J. H., & Bang, J. H.(2013). Impact of youth start-up business incubating system on the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49-160.
- Hinkin, T. R., Tracey, J. B., & Enz, C. A.(1997). Scale construction: Developing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21(1), 100-120.
- Hoyle, R. H., & Panter, A. T.(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58-176), Thousand Oaks, CA: Sage.
- Jeon, I. O., & An, U. S.(2016). The effect of marketing characteristic on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97-109.
- Jeon, Y. I., Hyeon, S. Y., & Lee, G. H.(2003). Crisis management in venture business: An empirical study on problems and activiti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5(3), 3-23.
- Kang, B. O.(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Franchise business*,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ang, S. J., & Byun, S. H.(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85-96.
- Kim, C. H., Kang, B. O., & Yun H. B.(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135-1147.
- Kim, D. G., & Jin, C. Y.(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SC based four perspective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for small busines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4), 113-122.
- Kim, H. C., Lim, A. R.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8(2), 27-58.
- Kim, H. D., & Lee, C. G.(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you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53-76.
- Kim, K. D.(2014). A study on african women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issues toward women doing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41, 3-34.
- Kim, J. H.(2010). *Influence of a young entrepreneur's traits on business outcome: Based 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Kim, S. G., Park, S. H., Park, J. S., Seol, B. M., & Son, E. I.(2016). Development of index about the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63-76.
- Kim, S. Y.(2012).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cultivation of mind-natur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T. W., & Min, I. S.(2015).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employment status of unemployed youths: Multi-state discrete-time hazard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6, 195-222.
- Kim, W. Y., & Ahn, Y. S.(2017). A conceptual study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Founder Chung Ju-young of Hyundai heavy industries, *Korea Business Review*, 21(3), 1-45.
- Kim, Y. J., & Noh, B. S.(2012).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6), 23-31.
- Kim, Y. M., & Jeon, J. E.(200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siness Management Review*, 42(2), 39-56.
- Kirzner, I. M.(1978).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wak, D. C., Joo, Y. H., & Cho, B. H.(2016).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urvival rates: Focused on youth start-up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4), 77-94.
- Lee, J. H., Park, S. H., Kim, D. K., & Nam K. G.(2012). Program design of promoting entrepreneurship competencies for the small business enterprises middle manager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4(2), 277-306.
- Lee, S. B.(2016).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2), 117-138.
- Lee, S. M.(2006). The realities & tasks of start-up business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 124-152.
- Lee, Y. H.(2016). *Development in Core Competence Model of Venture Entrepreneurs*,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Y. H., & Park, S. H.(2014).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venture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31-244.
- Lee, Y. H., Hong, K. P., Jeong, Y. S., & Park, S. H.(2016). Develop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rategy for venture's successful startup,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8(1), 133-157.
- Levitin, D. J.(2006). *This in your brain on music: The science of a human obsession*, New York: Dutton.
- Lim, A. R., Kim, H. C.,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5(3), 143-154.
- Noh, K. S., & Kang, H. J.(2012).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79-87.
- OECD(2017).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Available at <http://www.oecd-ilibrary.org>.
- Oh, H. S., Lee, S. H., Ryu, J. H., Park, H. R., & Choi, Y. M.(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scal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4(2), 109-133.
- Oh, J. W., Lee, D. H., & Kang, J. K.(2015).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venture prepa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period of venture prepa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67-80.
- Park, C. Y., Kim, J. J., & Jeong, W. S.(2006).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 1-9.
- Park, C. Y.(1997). Trends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and abroad, *Industrial Engineering Magazine*, 4(1), 51-55.
- Park, D. G., & Choe, D. J.(2003). Development of entrepreneur's competency assessment tools and analysis of their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2), 61-91.
- Park, J. H., & Ahn, T. U.(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39-47.
- Park, J. W., & Kang, M. S.(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icro enterprise startup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Korean Business Review*, 9(3), 31-46.
- Park, S. H.(2009). Development of blended learning service model for enhanc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 *The e-Business Studies*, 10(4), 277-297.
- Saranto, K., & Leino-Kilpi, H.(1997). Computer literacy in nursing: Develop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llabu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2), 377-385.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tistics Korea(2018.1.10). *December 2017 and Annual Employment Trends*.
- Terashima, M.(2008). The Feasibility of Entrepreneur Education in the present age, *Bulletin of Nagoya Future Culture College*, 33, 22-28.
- Williams, P., & Webb, C.(1994). The delphi technique: A methodological discuss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1), 180-186.
-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 Yang, Y. S., & Kim, M. S.(2016). Case study of applying self-checkup preparation for the successful technology based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113-120.
- Yang, Y. S., Yang, S. H., & Hwang, B. Y.(2012). The study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paradigm to create 'good quality youth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167-179.
- Yook, C. H.(2015).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n, J. H., & Seo, M. K.(2014). Relationships among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technology and marketing capacit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in technology-focus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8(3), 137-159.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Lee, Ji An**
Ahn, Young Sik***

Abstract

Recently, many start-up failures occur as the number of attempts to start a business increases in a social atmosphere that encourages start-up. In particular, young entrepreneurs have a lower survival rate than general entrepreneurs because young entrepreneurs are challenging just with a simple idea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employment while lacking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usiness. Therefore,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start-up is lack of preparation for start-up and lack of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to build a basic framework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nd start - up preparation activities for young people.

To develop an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 researchers developed a preliminary questio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and expert verification. After that, researchers surveyed 102 entrepreneurs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 the final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 was comple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consists of 7 components and 15 measurement items. First, in the step of 'confi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two items of 'self-analytic competence', three items of 'ability of establishing start-up philosophy' are contained. Second, in the step of 'drawing up a start-up model', two items are contained in each category such as, 'ability of eliciting entrepreneurial idea,' 'ability of analyzing idea validity,' 'competence of planning a venture start-up model'. Third, in the step of 'planning the venture start-up,' two items are contained in each category such as, 'business-plan presentation competency,' 'ability of implementing organizational system.'. The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is meaningful as it could help young entrepreneur find out their lacking competence in preparing their start-ups and strengthen necessary competences by measuring their own entrepreneurship. Rather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ic data that can diagnose the entrepreneurship of young entrepreneurs is provided.

Keywords: Young start-up,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development, Measurement too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1023791).

** First Author, Dongeui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ety, Researcher, tomoelec@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and Youth Counseling, Professor, ays@deu.ac.kr